



암을 이기는 신비의 천연항생물질

프로폴리스의 기적

제3장 전문의도 놀라는 여러 가지 효능

♣ 위염과 감기몸살

만성병과 고질병은 참고 견디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고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감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기가 유행하면 반드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항균작용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기, 코, 기관지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문헌에는 위나 소화기의 치료와 예방에 프로폴리스가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바쁜 생활과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가 튼튼하면 음식을 잘 소화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가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은 식습관도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없는 음식들로 가려먹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필요로 하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위가 튼튼하면 감기도 쉽게 낫는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잘 소화시켜 흡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위와 관련된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처음 접할 때는 독특한 냄새 때문에 약간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응을 위해 우유나 음료수에 2방울 정도 떨어뜨려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도 중화되고 마시기도 쉬워져 적응

이 빨리 되며, 적응 후에는 깨끗하고 미즈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 화상의 염증 화기 진정, 피부병

〈꿀벌과학 9권 3호〉에 프로폴리스의 살균제로서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살균성은 각종 통증, 화상에 쓰이며 폐의 염증에는 흡입으로 큰 효과를 올렸다. 1967년 소련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프로폴린 30'이란 물질을 정식으로 인가하고 의학분야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프로폴린 30'이란 프로폴리스를 알콜에 용해한 30%의 용액이며, 외용에 바르는 약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소련에선 피부염이나 화상에 쓴다고 하는데, 프로폴리스에는 염증(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병적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작용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상이 생기면 먼저 찬물로 씻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곧 프로폴리스 액을 묽게 해서 그냥 환부에 바릅니다. 그러면 프로폴리스는 피부의 표면에 막처럼 퍼져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합니다. 조금 달라붙는 느낌을 주지만 그것이 2차적인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프로폴리스는 염증을 제거하고 환부의 열을 없애 주며, 염증은 처음부터 몸 속에 있는 일종의 병적인 산화작용인 것입니다. 프로폴리스의 항산화작용, 다시 말해서 소염작용이 피부 표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꿀벌이 스스로 채집한 프로폴리스를 벌집 내부의 벽에 움푹 파인 데를 엮게 발라서 벌집을 수리, 보강해서 입구의 부패방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피부의 외부로 침입해서 활동을 하려는 세균류를 프로폴리스의 막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의 화농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 화상

프로폴리스가 화상이나 피부병에 잘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체험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주부는 요리 중 뜨거운 물에 왼손을 데어서 바로 수도를 틀어 찬물로 약 5분간 냉각시킨 뒤 딸이 프로폴리스를 발라 주었는데, 통증이 곧 가라앉고 물집도 생기지 않았으며 부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주부는 “4-5일 지나 손등을 보니 매일 얇게 프로폴리스를 바른 부위가 검은콩처럼 되고 이쑤시개의 끝으로 피부를 벗기니까 가죽이 오므라들며 벗겨지고 그 자리에 빨간 새 살이 나타났습니다. 손을 대보아도 아픔이 없고 또 2-3일 계속해서 프로폴리스를 바르니까 검은 콩 같은 피부가 완전히 떨어지고 화상 자국은 식별 못할 정도의 새로운 피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피부의 표피만이 빨갱게 된 가벼운 1도 화상이며, 주전자나 냄비 뚜껑을 잡다가 입은 가벼운 1도 화상은 프로폴리스를 표피에 얇게 발라서 그냥 두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2도는 수포성 열상이라 해서 물집이 생기는 상태의 화상입니다. 2도쯤 되면 물집이 생겨서 진피(혈관이 통하고 있는 피부의 깊은 부위도 파괴되기 때문에 수포가 화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속한 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농해서 결국 자국이 남게 됩니다. 2도 정도의 화상에는 곧 찬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 후 프로폴리스를 바릅니다.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마유에 프로폴리스 다섯 방울 정도를 섞어서 바르면 좋습니다. 마유는 피부의 내부에 침투해서 내부공기를 몰아내고 외부공기를 차단시켜 산화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의 상승효과가 큼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폴리스만으로는 피부의 내부까지 침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마유를 섞으면 가볍게 잘 스며들 뿐 아니라, 프로폴리스의 강력한 살균력으로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 주부습진

주부습진은 흔하면서 치유가 어려운 피부병입니다. 주부습진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약간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체질적으로 잘 발병하는 병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됩니다. 주부의 노동은 물과 땀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부습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마유에 프로폴리스를 혼합해서 크림처럼 만들어 습진부위에 바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크림을 피부에 바를 만큼의 마유를 손바닥에 놓고 그 위에 프로폴리스를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그것을 손끝으로 잘 섞어 습진 부위에 바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마유에 프로폴리스를 혼합한 것을 씁니다.

바르기 전에는 목욕을 하든지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목욕 후의 피부는 침투력이 좋아 효과도 빠릅니다. 프로폴리스는 피부 전체에 골고루 발라지지 않지만 마유와 혼합하면 그런 점은 해소됩니다.

바르는 요령은 강하게 비비지 말고 살짝 칠하는 기분으로 발라야 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붉은 구진상의 발진이 작아져 있으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작한 후 매일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에게 따라서는 1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피부의 증상이 사라져서 깨끗한 피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로폴리스 혼합의 마유를 바르는 동안은 향히스타민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이 혼합된 크림이나 연고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쓰지 않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 피부습진

유아의 피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습진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젖먹이 아이의 경우는 먼저 입가나 귀 부근에 잔잔한 습진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머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습진이 생기고 그것이 손발에 퍼져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되면 짓물러서 까칠하며 건조하고 부풀어오릅니다. 손발에 퍼지기 전에 우선 프로폴리스를 습진 환부에 살짝 발라 주어야 합니다. 심하게 비비면 가려움증이 심하게 되고 습진도 악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비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광범위하게 습진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마유에 프로폴리스를 서너 방울 떨어뜨려 그것을 잘 섞어서 바른 뒤 가제 같은 것을 환부에 대고 붕대로 보호해 줍니다.

물론 바르기 전에는 피부를 청결하게 해야 하고, 밤에는 목욕 후나 샤워 후에 발라줍니다. 갓난아이의 경우, 잠잘 때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1일 2회쯤 정성껏 발라 주면 습진은 차차 사라집니다.

♣ 피부병

프로폴리스가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국의 임상사례 전문지인 <꿀벌과학 9권 3호>에 소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피부병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종합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680명의 피부병 환자에 프로폴리스를 써서 치료를 했는데, 그 성공률은 약 70%에 달했으며 더구나 부작용은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습진(170명), 신경성 피부염(312명), 영양불량성 궤양(65명), 기타의 피부병(133명)으로써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징크유(Zinc Ointment)와 연고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처치했다고 합니다.

만성습진, 신경성 피부염 환자에게는 연고를 1일 1회씩 국부에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붕대를 감고 징크유는 매일 30-40방울씩 식전에 마시게 했습니다. 만성습진은 손등이나 발, 팔꿈치의 안쪽, 무릎의 움푹 들어간 데에 습진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 습진이 화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를 시작해서 5-6일 이면 고름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피부가 부드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 피부는 탄력을 되찾았고 잠도 잘 오며 식욕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치료는 약 1개월 간 계속되었습니다. 영양불량성 궤양의 환자들 중에는 다른 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으나 프로폴리스 연고를 궤양부위에 바르니 상처는 소독되고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면서 빨리 나았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 연고의 항균효과는 이런 체험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 연구와 응용에 많은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태평 농림부농정국장 본협 내방

농림부 농업정책국 장태평 국장이 지난 2일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신임 장태평국장은 평소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시간동안 협회 현황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해운회장, 최규칠사무총장, 손재형 연구소장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세부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인양봉원

- ◎유채, 잡화, 화분떡
- ◎벌통 및 관납사업일체(주문제작)
- ◎신개발품! 석고병 특효약
(한약 효소제 인체 무해)
응애 진드기 합군제
양봉 구제약품 일체
- ◎종봉 수시 분양
- ◎월별 사양관리 특강 무료
시간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 점심 식사후 1시부터
- 장소 :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강사 : 국내 유명 강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초등학교 맞은편
043-836-4430, 011-9419-9698
농협 413080-52-017407 (박영주)

- 다음호에 계속 -